

제주사회복지신문

>2014년 4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78호

복지사각지대 대책, 제주는?

3월 한달간 일제조사 실시...발굴 대상자, 긴급복지사업 지원 등 연계예정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

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를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통리반장 등과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우선 단전, 단수가구를 비롯해 쪽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을 집중 조사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사업을 올해 60개로 확대하고, 보건소와 복지담당 부서 간에 상호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통해 89가구를 추가로 발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굴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여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읍·



지난달 1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업회(회장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 3개기관 대표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했다. 서귀포시는 최근 3개월 내 체납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기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가구와 창구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거주자 등에서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생계비(3인 가구 월 15만원)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제주도 보육여건 만족도 전국 1위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심화 과정 실시
 - 사회복지소식 4·5면
장애아동 대상 경직클러닉 진료
노숙인 희망을 부르다 선발 오디션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보건복지부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기획 8면
10대 시선으로 바라본제주(12)
법률출덕터(8)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김수완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 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4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5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 설 · 단 체 명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 장 소	문 의
서귀포시장애평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야간 돌봄 사업 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내	부모님들의 야간경제활동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야간보호” 등 - 대상 : 서귀포시지역 거주 장애인	일시 · 장소 : 2월~12월(매주 월~금) 18시~22시 센터 내 교육실 등 / 월 30,000원	733-6611
연강병원	4월 가족교육 및 도민강좌	찾병 (강사: 정신건강 전문의 고동범 과장) - 대상 : 제주시민 누구나	24일(목) 15시~18시 연강병원(오동동) 1층 회의실 / 무료	726-7900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우리는 희망이다’	1부 기념식 2부 정신건강강좌 및 지역사회 조사결과 보고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17일(목) 14시~16시 제주대병원 2층 대강당 / 무료	726-790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아카데미	성년후견인제도 설명회 - 제철웅(한국성년후견학회 회장)	10일(목) 14시~18시 / 협의회 삼다수홀(2층) / 무료	702-3784
		사회복지 행정실무교육 - 고경윤(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15일(화) 10시~17시 / 협의회 삼다수홀(2층) / 무료	
		도민 인문학 강좌 ‘제주문화광장’	4월 16일~5월 7일까지 / 협의회 삼다수홀(2층) / 무료	

제주도, 보육여건 만족도 전국 1위

중앙선데이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기획한 전국 지자체 평가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육여건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 만 19세 이상 주민 2만10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는 3.4392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는 전남이, 광주와 대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기초지자체 평가 보육서비스 만족도 순위에서는 서귀포시가 전남 영암군과 부산 남구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며, 제주시가 102위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전

국 최초 어린이집 차량 블랙박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과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보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제주” 2014 사회복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과장 강승부)는 지난달 11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내 사회복지 시설장 및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헤정원, 폐도자기 재활용 도기 제작



헤정원장(원장 이민숙)은 지난

2월 27일부터 주 2회씩 1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장애인의 직무향상 및 생산물 개발을 위한 폐도자기 재활용 도기 제작사업을 진행한다. 2월부터 도기제작에 관한 교육을 실시 했으며, 지난달부터는 폐도자기 활용 공정을 시작했다.

서귀포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서귀포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대형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는 1인당 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위탁기관(자동차운전학원) 또는 개인이 시에 청구하면 된다. 단,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지아연 연합캠프 개최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이하 지아연) 제주지부는 지난 2월 21~22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지아연 연합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캠프는 지혜상담치료센터 백은숙 소장이 ‘아동,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 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비롯해 성요한 신부가 진행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노래여행’ 등의 프로그램 진행했다.

제주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기준 완화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신규계약자 지원대상자를 제외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확대적용한다. 용자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이며,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로 7000만 원 이하, 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 원 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용자 한도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용자한도액 4900만 원이며, 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순복음복지관, ‘W-one day care’ 실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 2월 부터 치매어르신을 대상으

로 ‘W-one day care’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음악치료는 타악기나 멜로디 악기 등을 이용해 치매어르신들의 기억향상에 도움을 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매 월 2회씩 12월까지 진행된다.

자전거 하이킹 ‘나를 넘어 우리로’ 진행



온새미로지역아동센터 연합인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이호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자전거동아리와 자전거하이킹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화호텔&리조트제주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45명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광지해수욕장부터 모슬포항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결과 모두 성공적으로 완주했다.

제주장애인요양원, 행복한 쉼터V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

석왕)은 지난 2월 19일 아라동에 위치한 메가박스에서 ‘행복한 쉼터V’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이형섭복지재단 지원사업으로 매월 우정사회봉사단(회장 양준호)과 함께 영화관람을 하며, 중증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 및 미술활동, 음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제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3일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9개월간의 본격적

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클린하우스지킴이를 비롯해 문화재지킴이, 초등학교 사서 도우미 등에 2564명이 참여하며 월 36시간 근무시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한국사례관리학회와 함께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진행했다.

기초 실무자과정 이수자 중 컨퍼런스 1회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통과정(21시간)과 영역별과정(7시간)으로 구성하여, 장애인과 아동

분야로 나뉘어 사례관리 실천현장에서의 핵심과업 및 특수욕구집단별 사례관리방안에 대한 심화학습을 진행했다.

지난달 4일부터 한달여간 실시한 결과 총 61명의 신청자 중 48명이 수료했다. 공통과정은 그리스도 대학교 전석균 교수와 경인여자대학교 조현순 교수가 '초기상담 및 욕구사정 평가'와 '자원개발 및 조

직화'에 대해 교육했으며,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가 '사례관리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에 대해 각각 7시간씩 2회에 걸쳐 강의했다.

영역별 과정은 WeStart 운동본부 박호준 부장이 '아동영역의 사례관리 동향과 전망, 아동의 욕구 및 발달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전략'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경기복지재단의 황미경 팀장이 '장애인복지 영역의 사례관리 동향과 전망, 장애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전략수립'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교육에 참여한 단체를 대상으로 4~6월까지 월 1회, 8개 기관을 선정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서귀장복, 장애성인 평생교육 메카 발돋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해 6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장애성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7월부터 장애성인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창의적 활동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당당한 사회생활을 위해 이미지메이킹, 인문교양아카데미를 실

시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자립역량아카데미가 실시됐다. 또 노인장애인을 위한 댄스스포츠교실과 노래교실, 인식개선 강사양성을 위한 전문가아카데미, 장애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양육경감을 위한 장애부모아카데미(쉽&힐링)도 운영해 총 132명의 성인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1~2급 및 3급 뇌병변장애인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3급 전체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교통수당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사업이다.

교통수당 신청 및 지원절차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사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자미성, '차를 통한 치유와 소통'



동제주복지관, 상담치료 진행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사업으로 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중 조손 및 한부모 가정과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들의 낮은 자존감과 사회성 결여가 의심되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른 상담치료를 제공한다.



(사)탐라차문화원(원장 이연정)은 지난달 13일 내 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원장 현갑

열)을 방문해 '차를 통한 치유와 소통 프로젝트 운영'을 주제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와 다과를 제공했다. 차와 함께 마음속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은 자미성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읍·면·동복지위원회의체 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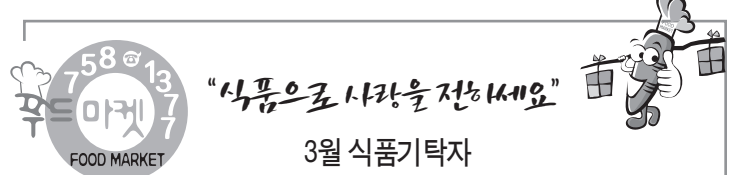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8일과 2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 복지위원회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20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라대학교 홍연숙 교수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동향과 이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조손가정 수당 인상확대

제주시는 조손가정 수당 및 아동학습 수당을 지난해에 비해 월 2만원을 인상하는 한편 초·중·고등학생 문화활동비를 월 5천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6년 만에 늘어난 이번 수당은 학습수당 및 조손가정 수당은 1인당 월 5만원과 7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문화활동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2만원, 중등 2만5천원, 고등학생은 3만원을 지급한다.



▲안신희씨=봄동배추 485kg, 갓 10kg, 쪽파 18kg, 무 15개 ▲금강축산유통=육류 357kg ▲김치원=김치 40kg ▲동원F&B제주=식재료 2570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339모, 콩나물 25봉 ▲아미코스메틱=화장품(애플) 500개 ▲암암영농조합법인=유기농사탕 10개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 이도점=빵 61봉 ▲제주보리촌=보리빵 44봉 ▲제주종합식품=감자 1000kg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양배추 63망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376봉 ▲무기명=브로콜리 24kg, 쪽파 29kg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1지역 현승훈 부총재 외 임원일동=100만원 상당 국수, 라면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35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90,000	390,000
복지사업후원	1,220,221	1,027,660
푸드마켓후원	3,090,000	878,24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대상 경직클리닉 진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지체·뇌병변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 지원 및 경직클리닉 진료를 실시했다. 한국가스공사 후원으로 분

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진행한 이 사업은 이틀간의 진료를 통해 15명에게는 자세유지 재활보조기를, 8명에게는 수술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자폐아 부모는 “재활의학과를 비롯한 정형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의 통합적인 진료를 통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지원받은 고가의 자세보조기는 “아이가 어린이집 생활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아카데미 ‘천연화장품 만들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달부터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장애인자녀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 및 삶의 활력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3월에는 천연화장품만들기 4회기를 실시하였고, 4월은 웰트교실, 5월은 도예교실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탐라복지관,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은 지난달 3일부터 2014년 직원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배우go, 채우go, 나누go’ 사업을 실시했다.

교육은 사단법인 주민통합서비스전국네트워크 김미경 사무총장의 ‘직원의 의소통과 수퍼비전’과 김호진연구원의 ‘사업계획서의 핵심기법과 스마트워크활용’으로 진행됐다. 고은실관장은 “이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자원봉사강사양성과정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 ‘2014년 자원봉사강사양성(기초반)’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강의교안 작성과 실습, 스피치 향상,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원봉사 교육 적용법, 제95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제주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 하며,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심화반 과정이 운영된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복지사업 전개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아름다운 가게 서귀포점 공동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대학입학자녀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위생방역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임철남 센터장은 지난 2월 26일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우리들의 여행스케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강철남)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4박 5일간 중·고등학생 등 위탁아동 2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자립여행 ‘우리들의 여행스케치’를 실시했다. 4박 5일간 진행된 자립여행은 팀별여행과 단체 여행으

로 나눠 아동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게 했다. 부산의 감천마을과 가락시장, 서울의 인사동, 동대문, 광화문 등 지역탐방을 하는 팀별 여행과 한국잡월드(직업체험), 문화체험 및 공연 관람 등 단체 여행으로 진행됐다.

‘노숙인 희망을 부르다’ 선발 오디션



제주시희망원(원장 박정해)은 지난달 14일 ‘노숙인 희망을 부르다’ 사업과 관련하여 그루터기 중창단 선발 오디션을 실시했다. 제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중창단으로 주 1회 중창 레슨을 받으며, 합창제 및 인근병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공연 등 지역사회문화 행사에 참여 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가족통합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서귀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영신)는 지난 달 13일 2014년 제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발

달장애인가정의 가족에 강화를 위한 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힐링 장-가(장애인 가족) 클럽’의 네트워크 협

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서귀포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어마빠랑신나는인형극회,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플러스하트자원봉사단 등 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서귀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영신 센터장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로 좋은 가게, 봄맞이 특별기획전



사회공헌기업 ‘서로 좋은가게’ 제주점은 오늘 9일부터 15일까지 ‘봄맞이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서로좋은가게 상품 전품목 30%~10% 할인판매되며, 전국 우수자활생산물로

선정된 영농협동제주다생산물 양생초차를 1+1로 판매한다.

각종 시식, 시음 코너가 마련되며, 물건 구입시 제주에서 생산되는 마유비누 또는 마이유 삼푸가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탐라라이온스클럽, 사회복지 성금 전달



1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를 방문해 사회복지 성금 일백만 원을 전달했다.

창립 3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 성금은 도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탐라라이온스클럽(회장 이백만) 회원일동은 지난 달

Dancing with the 유진!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시설(원장 최은미)은 지난달 5일부터 라인댄스 사업 ‘Dancing with the 유진!’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댄스스쿨(제주시 노형동) 강사의 지

도로 매주 수요일 유진주간보호센터에서 12월까지 진행된다.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나는 춤을 통하여 이용인들의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정읍 노인학대 예방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21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읍 지역을 방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경찰서를 비롯해 읍사무소, 복지관 등 지역기관을 방문해 홍보 리플렛 비치, 포스터를 게시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관 안내와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일배움터, 직원역량강화연수 실시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직업재활사례관리 전문성향상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직업재활의 전문성 향상과 직업모델 개발, 장애인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을 위해 1회차로 우석대학교 재활학

과 김동주 교수의 ‘사례관리 과정개발 및 적용’과 ‘직업재활시설의 변화와 패러다임’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2회차로 제주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이명희팀장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의 이해’와 ‘사례관리 과정의 개발 및 적용’이란 주제로 연수에 진행했다.

칼럼

자생(自生)의 뜰



김길웅
시인·수필가

산악인 엄홍길은 히말라야를 무려 38번이나 올랐다. 한 치의 시계도 확보되지 않는 눈 폭풍을 뚫고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산의 정상에 우뚝 선 그. 힘겨운 고행의 뒤결엔 이유가 있었다. 정상에 올라야 만날 수 있는 희망과 사람 때문이다. 만년설로 뒤덮인 정상은 그에게 인생을 건 의미였다. 그곳에 가야 만나는 희망, 그곳에 가야 만나게 되는 사람. 그곳은 성소(聖所)였다. 그의 고투(苦闘)가 경이롭다.

4월의 뜰이 생명의 숨결로 충일하다. 겨우내 침묵하던 나무들이 깨어나 한창 새잎을 내놓고 있는 활기찬 노역의 현장이다.

생각에 잠긴다. 사철을 두

고 나무는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싱그럽고 현란한, 때로는 어둡고 무거운 침묵과 정체의 언어다.

이즈음, 연둣빛이 푸르죽죽 해지면서 여름의 들머리에서 심록의 빛으로 몸을 두른다. 나무는 뻗속까지 초록일 때가 생명의 절정이다. 그 뒤로 이어지는 미묘한 변화에도 눈을 떼지 못한다. 가을 단풍은 초록의 미학적 변용(變容)으로 빚어진 화려한 색채의 마술이다. 단풍이 잦아들면 무채색 낙우를 걸치고 손을 놓은 채 긴 겨울의 휴식으로 들어간다.

내가 애초 정원 구성에서 낙엽수에 비중을 둔 것은 잘한 일이다. 솔이 푸르다 하나 푸름만으로는 단조하니 계절의 추이를 담아냄에 묘를 얻지 못한다. 푸르다 노랗고 붉다 시들어 잎 지고 발가벗은 채 서 있는 적나라한 저 모습. 낙엽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실존의 진솔한 표상이다.

자생(自生)은 놀랍다. 재배되거나 보호 받지 않아도 자연히 싹 터 자라지 않는가. 존재의 다양한 모습은 아무

래도 낙엽수 쪽이 훨씬 자생적일 것이다. 잎을 내려놓았다가 봄에 다시 새잎을 내는 자생력에 감탄하게 된다. 자연의 변신은 우리 앞에 단초를 이렇게 연다. 눈을 주는 순간, 메말랐던 감성마저 촉촉해 온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 돌아난 새 살을 바라보며 어찌 외경하지 않을 수 있으랴.

자생의 뜰에 서서 내 졸시 ‘초원의 말처럼’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날마다 내리는 희망이/ 우리에겐/ 존재이유였다” 그렇다. 늘 우리는 그렇게 존재해 왔고 존재할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정겨운 눈길이고, 등 따스운 온기가 있고, 우리를 절정으로 밀어 올리는 손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 신의 입김, 신의 손길이다.

산악인이 사투로 설산을 오르듯, 낙엽수가 겨울을 나고 새싹을 틔우듯,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 시대의 화두, ‘복지’를 가슴 가득 안고 쉽 없는 주행(走行)을 이어 가야만 하리. 청마의 해에 초원의 말처럼.

시론

어르신과 교통사고



신영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대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현대문명의 이기(利器) 중 하나가 자동차이다. 2012년 말 도내 차량대수가 3만9938대였으나 지난 해 말 기준, 33만4426대로 3만9938대가 늘었으며, 이는 세대당 1.4대로 모든 세대가 고 있으며, 2대를 보유한 세대 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불행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있어 기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님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통사고는 2013년도 4302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1.2%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는 107명이 지난 해 사망하여 전년대비 16.3%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과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돼야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어르신 사망자 수가 지난 해 44명(41.1%)에 이르고 있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까지 가난이나 질병, 소외, 할 일 없음 등이 그것이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노인복지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또한 고령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어르신들이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판단력, 대응능력 등이 젊은이들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노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 예방교육이다. 교통체계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며, 차량의 특성과 속도,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유형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와 어르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 한층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중심으로 ‘노인 보호 구역’을 확대해야 하며, 무의식적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분리선에 예방 펜스 설치도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며, 관광객 중 일부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관광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관광할 날도 머지 않았다.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르신들을 위협하는 요소도 많아진 것이다. 현대문명의 이기가 현대인들에게, 특히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비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고

일·가정·사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



고숙희
제주시여성가족과장

3·8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에 미국 섬유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건 개선, 여성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1910년 독일의 클라라 제트킨에 의해 제안되고 1975년 유엔에서 국제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

요즘 신문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란 내용을 많이 읽을 수 있다. 25~34

세 사이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을 경력단절현상이라고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적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11일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인 육아와 관련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와 한부모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에게 우선 제공되고 있

으며 대상아동은 3개월~12세까지이며, 영아 종일제(6시간) 돌봄연령은 기존 3~12개월에서 3~24개월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시간당 이용단가는 5500원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1500~4500원) 지원 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80시간교과과정과 실습 10시간 이수자이며, 현재 158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으며 2013년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2875가정에 2,9851명에 이른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행복 민생시책으로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시스템구축,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장 조성, 예비부모 아카데미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도내 아동복지시설 ‘전국 최고’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국 상위권 기록

도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제주지역 시설은 대부분 A, B등급을 받아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행된 이번 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수행했으며,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역 아동복지시설은 모든 시설이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제남아동복지센터와 천사의집은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서귀포작은예수의집과 벤엘이 각각 B등급을, 나머지 시설은 A등급을 평가받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예코소랑과 일배움터,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길직업재활센터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평화의 마을 등이 B등급을,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와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각각 C등급을 기록했다.

년 84.7점) 등 타 유형의 생활시설 수준에 근접 또는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372개 대상 시설의 평균 점수는 79.1점으로, 전체 평균에 6점 이상 미달되는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처음 평가를 받는 시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평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 시설운영의 경험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평가가 거듭될수록 시설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이중 시설 및 환경(생활공간, 편의시설, 위생상태, 안전관리 등)의 경우 91.0점, 이용자의 권리(이용자의 비밀보장, 고충처리, 인권보장노력 등)항목은 90.4점을 기록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신규 또는 강화된 지표가 많은

구 분	시설 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전 체 평 균	1,014	85.2	91.0	84.5	82.6	85.7	90.4	80.3
아 동 복 지 시 설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장 애 인 거 주 시 설	367	87.9	91.1	86.4	84.5	88.2	93.7	87.4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372	79.1	87.9	79.9	78.8	78.6	83.5	69.8

평가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A등급 449개 소(44.3%), B등급 346개 소(34.1%)로 전체 1,014개 시설 중 B등급 이상이 795개소(78.4%)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전체 275개 시설 중 258개 시설(93.8%)이 B등급 이상으로 평가돼 시설 운영수준이 높게 평가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전체 367개 대상시설 중 316개 시설(86.1%)이 B등급 이상이었으며, 첫 평가를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72중 221 시설이 B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횟수가 늘어나면서(5회차) 상당수의 시설이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됐는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전체 평가시설의 42.9%(275개 중 118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전체 평가시설의 16.9%(367개 중 62개)가 2회 연속 A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평가등급은 점수구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A등급은 90점 이상,

B등급은 80점 이상~90점미만 등으로 나뉘고 F등급은 60점 미만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정수준에 도달한 우수시설은 다음평가에서도 계속 우수시설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에 통보해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학계·협회·우수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관리단을 통해 품질관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속으로 우수등급으로 평가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노력도, 차기 유사등급 평가 가능성 등을 감안해, 평가영역 축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도 시설유형	2010년		2013년		평균점수 증감('13~'10)
	시설수	평균점수	시설수	평균점수	
전 체 평 균	555개	84.8점	1,014개	85.2점	↑ 0.4
아 동 복 지 시 설	266개	88.4점	275개	90.0점	↑ 1.6
장 애 인 거 주 시 설	289개	81.5점	367개	87.9점	↑ 6.4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	-	372개	79.1점	-

전국 평가의 경우 3개 유형 1014개 평가대상 시설의 평균점수는 85.2점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275개 시설의 평균 점수는 90점으로, 지난 평가인 2010년 88.4점에 비해 1.6점 상승해 처음으로 평균점수 90.0점대로 평가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2010년 289개 대상시설에서 367개 대상 시설로 평가 시설이 확대된 가운데 평균 87.9점으로 6.4점 상승해 정신요양시설('11년 89.9점), 노숙인복지시설('11년 89.9점), 노인양로시설('12년 86.6점),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

인적자원관리(종사자 교육, 인사관리, 전문성 등) 82.6점, 지역사회관계(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련 등) 항목은 80.3점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용자 권리(95.4점)와 시설·환경(95.0점)이 90점을 넘는 평가를 받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도 이용자 권리(93.7점)와 시설·환경(91.1점)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시설·환경이 87.9점, 이용자 권리가 83.5점을 받은 반면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69.8점을 기록해 조사영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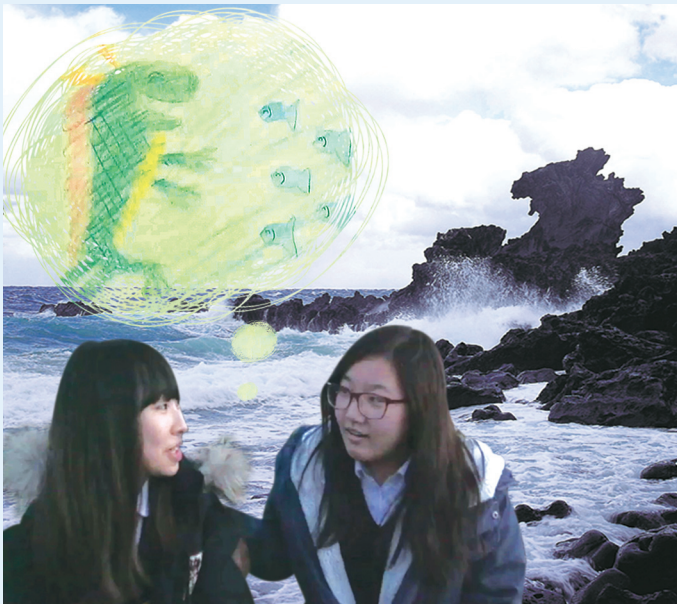
구 분	시설 수	등급별 시설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 미만	C등급 70~80점 미만	D등급 60~70점 미만	F등급 60점 미만
전 체 평 균	1,014	449(44.3)	346(34.1)	113(11.1)	58(5.7)	48(4.7)
아 동 복 지 시 설	275	176(64.0)	82(29.8)	11(4.0)	1(0.4)	5(1.8)
장 애 인 거 주 시 설	367	197(53.7)	119(32.4)	31(8.4)	12(2.3)	8(2.2)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372	76(20.4)	145(39.0)	71(19.1)	45(12.1)	35(9.4)

* 평가등급은 점수구간에 따라 5단계(A~D, F)로 구분 : (A) 90점이상, (B) 80점이상 ~ 90점미만, (C) 70점이상 ~ 80점미만, (D) 60점이상 ~ 70점미만, (F) 60점미만

계	평가대상 시설수	연속 A등급 시설				1회 A등급
		소 계	2회 연속	3회 연속	4회 연속	
아 동 복 지 시 설	275	118	50	45	23	57
장 애 인 거 주 시 설	367	62	32	26	4	134
계	642	180	82	71	27	192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2) - '용두암의 전설'

용이 되지 못해도 슬프지 않은 이무기. 용두암의 전설을 아시나요?



▲ 몽생이 기자단 영상자료 캡처 사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주도 방방곳곳 나들이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제주시 가까운 해안가로 가보면 신비한 전설이 있는 용두암이 있습니다. 용두암은 제주 관광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한 곳으로 제주시 해안도로가 시작되는 동쪽 해안가 한천 하류의 용연 서쪽 200m쯤에 위치해 있으며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 용두암이라고 불립니다.

용굴에 살던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려고 자 한가한 신령의 옥구슬을 가지면 승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령의 옥구슬을 몰래 훔쳐 용연계곡을 통해 무사히 몸을 숨겨 내려 왔으나 용연이 끝나는 바닷가에서 승천하려다 들

키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다 한라산 신령의 활을 맞고 바다에 떨어진 이무기는 승천하지 못한 한과 고통으로 뒤틀며 울부짖는 형상으로 굳어 지금의

우리가 아는 용두암으로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는데, 용두암에 대한 전설을 우리만의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알고 있었던 이무기는 사실 용이 되기 위한 천년의 시간동안 몰래 숨어있던 친구가 아닌 바다의 모든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는, 유쾌하고 착한,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었다 라면, 그리고 비록 본인의 실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용이 되지 못해도 슬프지 않았다고 했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즐겁고 친구들과 신나는 일도 많지만 생각의 차이로 인해

서로 오해하기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잘 알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몽생이 기자단에서 제작한 용두암에 대한 이 영상은 조금이나마 우리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뭐 꼭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동화 같은 용두암의 전설. 이제 스마트폰을 열고 QR코드를 찍어 잠시 순수한 시간으로 빠져 들어가 볼까요?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⑧

소녀가장,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다.

후견인 선임절차를 도와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도록 한 사건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A양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2011년 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2012년 여름에는 아버지마저 사망하여 혼자자가 되었다.

장례를 마친 후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으려는 A양에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A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를 받아서 오라고 했다. A

양은 고모를 특별대리인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 선임결정을 받는 방법을 몰라 헤매던 중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법률홍닥터와 만나게 되었다.

법률홍닥터는 상담을 통해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간에 이해상반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사안이 아니라 후견인을 선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승계를 대리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법률홍닥터는 직접 A양과 함께 누가 A양의 후견인인지 찾아나섰다.

현행법상 미성년후견인은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먼저 A양의 지정후견인은 없었으므로 법률

홍닥터는 제적등본과 진술을 통해 그 다음 후견인인 법정후견인을 찾아나갔다.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양가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자가 수인일 경우 최고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는데, 조부모, 외조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양가 3촌들 중에서는 외삼촌이 가장 연장자임을 확인한 법률홍닥터는 외삼촌이 이미 A양의 법정후견인으로 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법률홍닥터는 실질적으로 A양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후견인 변경도 검토하였지만, A양이 곧 성인이 되므로 후견인이 필요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때까지 위 아파트의 승계 문제 외에

후견인이 A양의 법률행위를 대리해줘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후견인을 변경하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승계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A양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외삼촌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승계 대리를 부탁해 보고 거절시 후견인 변경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내렸다.

법률홍닥터는 A양에게 외삼촌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구청에 가서 후견개시신청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모시고 가서 승계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하였으며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특별대리인은 임대차 계약명의자가 사망했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단독 상속인

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결국 A양은 법률홍닥터와 상담한 대로 외삼촌에게 연락하여 후견개시 신청을 하고 함께 관리사무소에 가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INFO

법률홍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홍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